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환아등록 및 후원문의 064-752-3300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10717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1월 4일 수요일(음력 9월 25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새 협약

비용 부담 줄었지만 물동량·재정부담 여전

손실보전금 한도, 연간 73억 → 50억원 미만 조정
손익분기점 12% 수준 물동량… 확보 방안은 미흡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따른 교부세 감액 우려 여전

막대한 손실보전금과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따른 교부세 감액 우려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새 협약안이 발표됐다. 연간 최대 약 73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남은 협약 기간의 지원 총액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손실보전금 한도는 줄였지만 물동량은 여전히 손익분기점의 10% 남짓에 머물러 있어 매년 한도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관련 신규 협약안을 발표했다. 위 지사는 "기존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존 협정은 선사의 연간 운항비용에서 화물 운임 수입을 뺀 차액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구조다. 화물을 한 개도 싣지 않으면 연간 519만4000달러(환율 1400원 기준 약 72억7000만원)를 모두 제주도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항로 개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2항차 동안 실린 화물은 1352TEU(컨테이너)로 항차당 평균 26TEU에 그쳤다. 손익분기점인 항차당 220TEU의 12% 수준으로 현재까지 제주도가 선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76억2000만원에 이른다.

새 협약안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원 미만, 연간 지원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지원금 산정 방식은 기존과 같지만 연간 지원액이 한도에 이르면 더는 지원하지 않는다. 재정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가 1기,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가 2기다. 2기 한도는 50억원에 2기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협약 만료일은 기존 협정과 같아 실제 지원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국 측 요청에 따라 국내와 일본 항만을 연계한 항로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주도 국제물류추진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부산은 기존 선사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칭다오와 일본, 제주를 잇는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항 일정 검토와 사업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만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우선 물동량 확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실현 가능한 물동량 목표를 마련하는 한편, 항로를 이용한 직접 수출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재까지 누적 물동량의 83%(1124TEU)가 수입 화물이고 수출은 228TEU에 그친다.

제주도는 지난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이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연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지난해 맺은 기존 협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기존 협정이 효력을 잃더라도 과거 절차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관련 심사를 받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새 협약은 지원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기존 협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기존 협정이 끝나면 감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감액 여부가 정해진다며 행정 절차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감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검은이마직박구리들의 군무 3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서 검은이마직박구리 한 무리가 군무를 펼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천주교 제주교구, 교황 제주 방문 추진

위성곤 지사-문창우 주교 간담회서 협력방안 논의
4·3 아픔 간직한 중문성당 방문 추진 공감대 형성

제주특별자치도와 천주교 제주교구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교황의 제주 방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위성곤 지사, 천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도의회 가톨릭 신우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황의 중문성당 방문이 성사될 경우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방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 천주교 제주교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황 방문 건의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중문성당은 제주4·3 당시 민간인 71명이 희생된 학살터에 세워진 성당으로, 현재 '치유와 평화의 기념성당'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념성당은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132㎡, 연면적 1388㎡, 지상 3층 규모로 성당과 기념관, 전시부속관, 기념탑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제주교구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제주교구대회는 서울 본대회에 앞서 해외 가톨릭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며 지역 청년들과 신앙과 문화를 교류하는 행사로, 내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열린다.

이번 제주교구대회에는 24개국 약 2000명의 해외 청년이 참가할 예정이며, 천주교 제주교구는 참가자 모집과 홈스테이 가정 확보 등 행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교구 및 도의회와 협의해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창우 주교는 "오랜 세월 이념의 굴레에 갇혀 있던 제주4·3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치유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교황의 방문과 메시지는 제주도민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소중한 축복이자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지사는 "천주교 제주교구, 도의회와 힘을 모아 교황 제주 방문을 추진하고, 세계청년대회 제주교구대회 준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태윤기자

2026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SINCE 2015
(주)삼다기획
Samda Event Rental



이사 고 대 환
제주시 신광로1길 10, 205호
Fax. 050)4245-7160
Mobile. 010-2603-2789
E-mail. samda2789@daum.net

몽골천막, 캐노피천막, 탁자, 행사용의자 임대
행사기획 및 이벤트 진행
무대, 음향기기 설치 및 임대
현수막, 상패, 행사용품, 책자, 홍보물 제작
이동식 화장실, 장애인용 이동식 화장실 렌탈

